

박태환 “올림픽 기회만 주어지면 자신있다”

“내 기록을 넘어서는 순간 메달은 따라올 것”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진 박태환(27)이 오도기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결론은 “기회만 주어지면 자신있다”는 것이다.

박태환은 27일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 겸 제88회 동아수영대회 남자 일반부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초26으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금지약물 사용으로 인한 국제수영연맹(FINA)의 징계로 한동안 물살을 가를 수 없었던 박태환은 주 종목인 자유형 400m 복귀전에서 시즌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좋은 기록을 내며 건재를 과시했다.

박태환은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만큼 노력을 했다. 최선을 다해 준비를 닦았던 것 같다.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힘든 점이 많았는데 그래서 더 훈련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3분4초대의 호성적에도 박태환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박태환은 내실 세계 2위권에 해당하는 3분42초대 진입까지 바라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은 “자유형 1500m가 첫 날에 있었는데 미리 준비를 하고 나서 단거리 준비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조금은 힘든 것 같다면서 “오늘은 경기 전 수영복이 갑자기 찢어져서 바뀌었고 왔다. 최선을 다하는 생각만 했다”고 웃었다.

박태환이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은 그의 올림픽 진출에 쏠리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이달 초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박태환은 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거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으로서는 대한체육회가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잘 모르겠다. 이번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자만 생각했다”는 박태환은 “올림픽은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자신있다고 생각은 했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겠다는 것보다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넘어설 수 있다고 충분히 자신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대한체육회의 산책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태환은 “많은 분들이 성원해주시는데 관심이 보답하는 길이 지금 이 대목이다. 이 기록을 넘어서는 자리가 한 번 더 주어지면 그것이 올림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올림픽에서 내 기록을 넘어서는 순간 어떤 메달이든 따라올 거라고 자신하고 있다”고 출전 기회만 주어지면 호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자신했다.

한편 박태환은 28일 자유형 100m를 통해 이번 대회 마지막 레이스를 갖는다.



27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88회 동아수영대회(2016 리우 올림픽 경기)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남자 일반부 자유형 400m 결승전, 박태환이 역영을 펼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전북현대모터스 30일 홈경기 대형부채 7,777개 선물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의 주축 수비 4인방이 오는 30일 오후 4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의 홈경기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전북의 박원재, 최재수, 김창수, 최철순 선수는 전북 팬들의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들의 사진과 팬들로 가득 찬 전주성의 사진을 담은 빅사이즈 부채를 제작해 경기 당일 게이트에서 직접 팬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이벤트에 참석한 최철순 선수는 “전북의 유니폼을 10년 넘게 입은 원클럽팬으로써 어느 곳을 가도 우리 전북팬들만 한 축구팬들을 보지 못했다”며 “항상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자부심을 갖고 있어 작게나마 선수들이 할 수 있는 보답 행사인 것 같아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한편 부채수량을 7,777로 맞춘 이유로는 참가하는 4선수의 등번호 합이 77임을 모티브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근 기자



이일여고 탁구팀 종별선수권 20년 만에 우승 차지

이일여자고등학교(교장 박민식)가 제62회 전국 남녀 종별 탁구선수권대회에서 여고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20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모든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여고생 국가대표로 유명한 김지호 선수와 고교 최강의 수비수로 평가받는 한미정 선수가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모교의 정상 탈환을 도왔다. 대회의 백미로 불리는 여자단체전 결승에서 울산의 대송고를 맞아 김지호, 한미정 선수의 완벽한 경기운영으로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3대0으로 완파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전통의 탁구 명문으로 1996년 이후 20년 만에 다시 기지개를 편 이일여고 탁구팀이 전국을 호령하는 최강자의 자리에 다시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근 기자

전북도민체전 이색 성화봉송 ‘눈길’

내일부터 월명종합경기장 · 군산시 일원에서 경기 진행

‘2016 전북도민체전’을 밝힐 성화 봉송에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이색적으로 치러질 예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함께 뛰자! 군산에서, 함께 열자! 전북미래」라는 슬로건으로 내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군산월명종합경기장과 군산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6년 전북도민체전 기간 불을 밝힐 성화 봉송이 진행된다. 성화는 오성산에서 채화 후 수송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축동사거리 ~ 우리은행 나운동지점 ~ 문화사거리 ~ 신흥사거리 ~ 명산사거리 ~ 내항사거리 그리고 시청에서 월명종합경기장까지 봉송하게 된다. 차량봉송은 오성산에서 새만금방조제를 지나 가력도원에서 반환하여 시내 구간인 수송동 주민센터 정류장에서 주차장에 성화를 인계하게 된다. 먼저 군산시가 표방하는 어린이 행복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어린이 15명이 시내구간 첫 주자로 나서고 친 기업도시를 알리기 위한 군산시 여성 기업인과 장애인들의 활채어 봉송도 눈에 띈다. 또한 서천군민이 참여하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등 6개국 출신 다문화 가정 여성도 한 구간을 맡아 성화를 옮기게 된다. 특히 최근 군산시가 근대문화역사 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근대문화역사거리 중심인 명산사거리에서 내항사거리까지는 인력거로 봉송을 하게 된다. 마지막 구간인 시청에서 월명종합경기장까지는 최근 선진 레저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농촌의 말산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가마로 성화를 봉송한다. 마지막으로 성화봉에 접화하는 순서는 새만금 방조제 33km를 상징하는 의미로 초등학교 어린이 33명이 최종주자에게 접화하는 것으로 성화봉송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축구협회-BLINDSPOT 유소년선수 후원 MOU 체결

전라북도축구협회(회장 김대은)가 스포츠 의류 제작 판매 기업인 BLINDSPOT(대표 이재구)과 유소년 선수 후원 MOU를 체결했다.

BLINDSPOT는 연간 5명 이상의 유소년 선수들에게 장학금과 물품 등 경제적 지원과 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지원 부상으로 인한 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 등 전방위 적인 후원을 할 예정이다.

통근 결단을 내린 BLINDSPOT 이재구 대표는 “초등학교 때 축구를 시작해 프로선수까지 활동한 남동생을 둔 형으로써 축구 선수들의 어려움과 가족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꾸준한 지원을 통해 유소년 선수들의 꿈과 노력을 응원하고 후원하겠다”고 후원 소감을 전했다. /김민근 기자

통합 전라북도체육회 출범후 첫 이사회 개최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통합 후 첫 이사회를 27일 전라북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새로 선임된 부회장 이사, 감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라북도체육회장인 송하진 도지사가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으며, 전라북도체육회 통합 경과, 규약제정, 2016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선임, 2016전북도민체전대회 개최 계획 등 다양한 업무 보고와 함께 사무처장 임명동의, 각종 규정 제정, 2017전북도민체전대회 개최지 선정, 전라북도민속경기회 회원단체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관심을 모은 2017년 전북도민체전 개최지로는 부안군으로 선정됐다. /김민근 기자

태권도원

위대한 체 · 인 · 지의 시작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